

한인 여학생, 미 '학생 아카데미' 금메달상 수상

미국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국제 학생 영화 공모전 '스튜던트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한인 여학생의 애니메이션이 금메달상을 받았다.



▲ '학생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금메달을 받은 김수진 씨. 사진=유튜브(아카데미)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MPAS)는 전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김수진 씨가 연출한 '잊히지 않는' (원제 'Unforgotten')을 미국 국내 영화학교 학생 작품 중 애니메이션 부문 금메달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잊히지 않는'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의 기억과 극복의 의지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김씨는 수상 소감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한 다른 영화들은 대부분 피해 여성들의 폭력적인 성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시각적

폭력이 될 수 있다."면서 " '잊히지 않는'은 위안부 피해자 내면의 저항 의지에 초점을 두었다. 불의에 맞선 인간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노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1972년 제정된 학생 아카데미상은 매년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대안·실험 영화 장르에서 미국 국내 영화 학교와 국제 영화 학교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학생 아카데미 수상작에는 오스카상 출품 자격이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들은 오스카상 후보에 65차례 올랐고 14개 상을 받았다. 학생 아카데미 수상자 출신 감독으로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든 피트 닥터, 인종차별 문제를 파헤쳐온 스파이크 리, '백 투 더 퓨처' 시리즈의 로버트 제메키스, 007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를 연출한 캐리 후쿠나가 등이 있다.

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영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이다. 특별 자수 접수는 주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민원실로 하면 된다(사전 예약 불필요).

특별 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다만, 앞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특별 자수 신청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 자수 기간 동안 자수한 경우 한국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뉴스-공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213) 385-9300 내선 305 (노선균 영사)

뉴저지 주의회, 미국 최초 한복의 날 기념 결의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가 탄생했다.

미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대표 브라이언 전)는 지난 18일 뉴저지 주의회가 올해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스테픈 스위니 뉴저지 상원 의장과 크레이그 커플린 뉴저지 하원 의장이 함께 서명한 결의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고조선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민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점이 명시됐다. 결의문에는 또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이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시가 올해 이날을 최초로 한복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앞서 테너플라이시와 클로스터시 등 뉴저지 내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됐지만, 주 차원에서 한복의 날이 기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다. 이후 이 단체 회원들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테너플라이시를 설득해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켰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국계 청소년들의 설득과 노력에 따라 뉴저지 주의회도 한복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테너플라이시와 클로스터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미국의 도시들이 한복의 날을 기념하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